

보도자료

존 딜그 John Dilg

Perpetual World

전시기간: 2025년 2월 15일 - 3월 30일

오프닝 리셉션: 2025년 2월 15일 (토) 4 - 7 pm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 x P21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74

운영시간: 화요일 - 금요일: 11 am - 6 pm, 토요일: 12 - 6 pm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Galerie Eva Presenhuber)가 서울에 있는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 x P21 전용 소룸에서 미국 아이오와 출신 작가 존 딜그(John Dilg)의 네 번째 개인전 Perpetual World(영속적 세계)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딜그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갤러리스트 에바 프레젠후버와 최수연 대표의 세 번째 협업이다.

존 딜그의 회화는 풍경화라기보다 하나의 풍경처럼 느껴진다. 그는 고향인 미국 중서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을 활용한 은유와 추상을 작품에 담아낸다. 미묘한 색채의 뉘앙스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통해 고요한 정적과 영속적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는 매혹적인 교향악 구성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작품의 주제는 회화를 구성하는 오브제가 아니라 삶의 한 순간 그 자체의 표현이다.

험준한 지형을 따라 강이 흐른다. 언덕진 땅은 초목이 드물지만 거주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물은 깨끗하지만 이탄질 토양 때문에 갈색을 띤다. 굉음을 내며 빠르게 떨어지는 폭포는 어두운 웅덩이를 만든다. 물 표면에는 거품이 떠 있다. 북부 지역의 초목인 양치식물과 낙엽수 몇 그루가 서 있다. 계절은 가을이고 아직 서리가 내리지 전이지만 겨울 기운이 완연하다. 큰 나무 한 그루가 강을 내려다본다.

딜그의 그림 속 자연은 언제나 자연 그대로일 뿐 도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 황량한 자연은 고요하고 척박하며 개간이 어렵지만 이따금 벌채의 흔적이 있다. 그림에서 유일한 움직임은 흐르는 물이 전부이다. 시간은 늘 밤이고 바람도 없다. 정적이 가득하지만 생명의 기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동물과 사람이 아주 가끔 등장하지만 풍경은 늘 충만하다. 그 고요함은 죽음이 아니라 꿈의 고요함이다. 마치 삶의 번잡함과 거친 현실로부터의 일시적인 휴식 같다. 외관상 얼어붙은 듯한 고요함 너머로 모든 나무 밑, 절벽의 모든 틈새, 헤아릴 길 없는 물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

충만한 분위기 속에 체념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 체념의 원인은 작가가 제시하는 세상이 인간이 초래한 재앙에서 회복 중인 세상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인간의 파괴성을 경험하지 않은, 어쩌면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결코 실현되지 않은, 대안적 상태의 세상이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밀둥이 잘린 그루터기에서 싹트는 새 생명의 기운을 담은 Looking Through 가 회복 중인 세상을 암시한다면 Nine-Mile Falls 같은 작품은 원초적 자연을 시사한다. 두 시나리오 모두 야생의 회복력에 대해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인간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고대 영어에서 유래된 단어 wilderness(황무지)는 '야생 동물만이 서식하는 땅'을 의미한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상태와 딜그가 그리는 모호한 세계의 풍경 사이에는 분명 유사성이 있다. 그곳은 아주 멀리 있거나, 머나먼 미래에 존재하거나, 인간이 훼손하지 않은 장소에 대한 꿈일지 모른다. 딜그의 작품에는 독특한 시간적

GALERIE EVA PRESENHUBER

초월성이 있다. 관람객은 자연이 미지로 가득한 야생 상태였던 시대를 되돌아보고, 언어와 풍경이 현대성을 몰랐던 시기, 더 나아가 현대성을 등진 세계를 동시에 떠올리게 된다. Wild Life 라는 작품에서는 한때 콜로라도 북부까지 활보했던 재규어가 돌아온다. 적어도 딜그의 그림 속 세상에서는 그 지역을 떠난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유키 히가시노

1945년 미국 일리노이주 에번스톤에서 태어난 존 딜그(John Dilg)는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의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이오와 대학교 예술미술사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 명예교수로 은퇴했다. 인도 풀브라이트 장학금, 국립예술기금 펠로우십을 수상했으며 뉴욕 주 사라토가 스프링스의 야도재단(YADDO Foundation)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세 번 참여했다. 딜그의 작품은 미국 아칸소 주 리틀록의 아칸소 아트 센터(Arkansas Arts Center), 아이오와 주 대번포트의 피기 미술관(Figge Museum of Art), 일리노이 주 시카고의 시카고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스페인 빌라파메스의 비센테 아길레라 세르니 현대 미술관(Museu d'Art Contemporani Vicente Aguilera Cerni) 등 여러 기관의 공공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작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onlinesales@presenhuber.com 로 언론 보도를 위한 사진자료 및 정보 요청은 press@presenhuber.com 또는 CNI 커뮤니케이션즈(jieunseo.cni@gmail.com)로 문의 바랍니다.